



| 특집 | 북극해항로(NSR) | 조선 | 북극항로인프라 | 북극지원 |

## 특집 : 러시아 정부의 북극개발 회의(4월13일) 주요 내용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YSU) 2022. 5. 11.

### 1. 개요

- 4월 13일에 개최된 러시아정부의 북극존 개발 회의 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회의내용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음
- 1) 서방의 대 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 북극 개발계획 실현토록 당부
- 2) 북극 공급사슬망 재건 및 중국과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강조
- 3) 2035년까지의 북극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진행
- 4) 러시아 북극 고위도 철도 건설 착수
- 5) 북극해 운송 관련 단일 운영기관 결정 필요
- 6) 2030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 2억톤 달성, 2024년까지의 물동량 보장은 4개 업체 중심

### 2. 러 정부 북극 개발회의 세부 내용 요약

#### 1)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 북극 개발계획 실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

- 서방의 대 러 제재조치로 러시아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들"이 열리고 있음. "러시아의 석유, 가스, 석탄 관련 러시아는 러 국내시장에서 자원 소비를 늘릴 수 있고, 원료 가공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러시아 자원이 필요한 세계 다른 지역으로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러시아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러시아는 최대한의 작업속도로 잘 대응해야 함. 북극해항로에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박 건조 계획을 잘 실현시키고, 북극 항구, 선박 및 항해용 장비 생산의 수입 대체화와 지역화 작업이 중요함.

#### 2) 북극 공급사슬망 재건 당부 및 중국과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강조

-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적 국가들이" 운송, 물류사슬을 중단하고 "북극에서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이에 대한 신속히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외부요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것"이라 언급함.
- 그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러시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극 외부의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푸틴대통령은 중국과 인도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임. 중국 기업은 야말 LNG와 Arctic LNG2를 포함하여 몇몇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ONGC Videsh 같은 인도기업이 러시아 북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Vostok Oil과 Syrdasaysky 석탄광을 인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음.

### 3) 2035년까지의 북극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진행

- 푸틴대통령은 2035년까지의 NSR 종합발전계획을 자금조달 규모와 재원을 정해서 승인토록 위임함. 동 계획에는,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들이 담긴 NSR 경유 장기 유망 화물량, 화물량별 화주의 의무, 필요한 쇄빙선단 규모와 리스트가 제시되어야 함.
- 하지만, 쇄빙선 외에도, 쇄빙선 뒤로 다닐 수 있는 선박들이 필요함. 그 규모는 132척임. 물론, 이는 물동량과 선단 혁신계획에도 달려 있다고 푸틴대통령이 말함. 이 외에도, 계획 상에 쇄빙선 선단과 내빙 화물선 및 건설에 필요한 장비들의 공급량과 건조기간이 명확히 정해져야 함. 이를 고려하여, 조선업체들의 현대화와 생산력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함. 수리 역시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이 언급함.
- 또한, SAR, 재난구조선박 건조 및 종합재난구조센터 건설도 강구해야 함. 모든 계획의 방안은 연도별로 구분해서, 예산과 자원조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4) 러시아 북극 고위도 철도 건설 착수

- 푸틴 대통령은 회의 석상에서 고위도철도 프로젝트 건설이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음. “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부, RZD(러 철도공사), 가스프롬과 기타 회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우리는 오랫동안 북부 고위도철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수출품을 동쪽(아시아)으로 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BAM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음.
- 러시아 북극의 대형 프로젝트인 고위도 철도는 화물의 흐름을 촉진하고 지역 인프라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산업지역을 북극해와 연결시키면서 북극 물류 개발의 핵심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 철도를 이용하여 최소한 900만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철도는 야말반도로부터 북극해항로로 화물을 운송할 새로운 수출로가 될 것이라는 점임.

### 5) 북극해 운송 관련 단일 운영기관 결정 필요

- 푸틴대통령은 “북부 공급(Northern supply: 혹은 북극 공급) 계획에 따라 해상 화물을 운송할 단일 운영사와 쇄빙지원 회사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부 공급 조정자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대통령이 말했음.
- 푸틴대통령은 북부 운송에 대한 특별연방법 초안에 대해 지시했음. “이 이슈에 대한 모든 측면을 반영해야한 한다. 화물리스트에서 출발하여, 각각에 대한 계획, 구현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운송 방법을 반영해야한다. 동시에 북극해항로와 관련 해역과 관련된 새로운 운송회랑에 대해서 기존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건설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고 말함

### 6) 2030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 2억톤 달성, 2024년까지의 물동량 보장은 4개 업체 중심

-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사인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2030년까지 북극해항로 물동량이 2030년까지 2억톤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극해항로는 프로젝트 건설 자재, 상품 및 준비된 제품의 운송로이며, 실제로 러시아 북부를 하나로 연결한다. 전략과제는 북극해항로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운송로를 만드는 것임. Novatek, Gazpromneft, Rosneft, Severnaya zvezda의 4개 회사가 2024년까지 북극해항로의 주요 물동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런 회사들이 계획을 실행하면 북극해항로 물동량이 2030년까지 2억 톤을 초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 2022년, 북극해항로 물동량은 3,500만톤이었음.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2024년까지 8,000만톤을 달성할 것이라고 한 바 있음.

### 3.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의견

- 서방의 대 러 제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 강구
  - 러시아는 여러 서방 국가들의 대 러 제재조치로 유럽 국가들도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러시아는 러시아의 자원을 인도, 중국 등 세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임.
- 러 북극 개발계획 추진 상의 차질 가능성 및 북극 해상화물 운송 단일 운영자 결정 지시
  - 러 정부의 북극 개발 회의 석상에서 푸틴대통령이 직접 북극 물류망 재건을 지시한 것을 보면, 러시아정부의 북극 및 북극항로 개발계획에 큰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 북극해항로 8천만톤의 목표 달성도 차질이 예상됨. 북극에서 해상화물 운송을 운영할 단일 운영자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재 북극해항로 인프라 단일 운영자가 Rosatom사(러시아원자력공사)이므로, Rosatom사 혹은 동사의 물류 자회사인 Rusatom Cargo사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극동북극개발부 알렉세이 체쿰코프 장관의 최근 인터팍스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까지의 북극해항로 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55척의 내빙화물선 건조계획이 있으며, 러시아 조선소 외에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사회의 대 러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끝.

주요 출처: [www.tass.ru](http://www.tass.ru) 2022.4.13., [www.rg.ru](http://www.rg.ru) 2022.4.13. [www.korabel.ru](http://www.korabel.ru), 2022.4.20.

<http://rus-shipping.ru> 2022.4.13., <http://strana-rosatom.ru> 2022.4.13. [www.thearcticinstitute.org](http://www.thearcticinstitute.org), 2022.

4. 5. <https://en.portnews.ru>, 2022. 4.13, <https://en.portnews.ru>, 2022.4.14,

<https://thebarentsobserver.com>, 2022. 4. 18

## <북극해항로(NSR)>

### ○ 러시아 북극의 항만 인프라 건설에 3천억루블이 투자될 것임

- 2022년 4월 13일 푸틴대통령은 러시아 북극존 개발 문제 회의에 참석. 참가자들은 북극 종합 사회경제 계획, 북극에서의 국제 협력, NSR 개발 문제를 협의하였음. 현재 북극에서 러 정부의 지원 하에 460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투자금액은 1.3조 루블을 상회함. 그 가운데, NSR 물류 및 물동량 발전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음.
- 로스아톰사는 2030년까지 국제통과운송량을 3천만톤까지 증대시키기 위해 2025년부터 정기 통과운송을 시작할 계획임. 특히, 항만인프라 개발로 NSR 수역에서의 4개의 항만 터미널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규모는 3천억 루블임.
-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는 유망한 안전한 화물 운송 보장을 위해 NSR 전 수역에서의 작업 증대가 필요하다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말했음. 러시아 조선소에서 4척의 원자력쇄빙선들이 건조되고 있음. 그 가운데, "리더급". 2030년까지 6척의 쇄빙선을 더 건조할 필요가 있음. 그 중 4척은 예산 밖의 재원으로 추진.
- 푸틴대통령은 몇몇 외국회사들이 북극에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고, 일련의 수송, 물류 사슬이 붕괴되었다고 언급. 신속히 대안을 찾도록, 장기적으로 더 대외 변수로부터 러시아가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러시아에겐 자원이 있다고 언급함.
- 쇄빙 에스코트를 활용하여 북부 운송의 해상화물 운송 분야에서 단일의 운영기관을 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푸틴대통령이 말함. 전체적으로 북부 운송 조정자를 정해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여러 부처들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푸틴대통령이 말함.

출처: <http://ru-bezh.ru> 2022.4.13.

### ○ 러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로스아톰사의 구조가 북극해항로(NSR) 운영기관이 될 수 있음

- 만약 NSR 상의 해빙 안내를 통합하고, 모든 수송 흐름을 집중조직화 한다면, 로스아톰사의 구조가 NSR의 운영기관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해 알렉세이 체쿰코프 장관이 말함.
- 러 북극존 개발문제 회의 초에 푸틴대통령은 단일의 북극 화물 운송 운영기관을 정할 것을 촉구.
- 쇄빙 에스코트를 공고히 하고, NSR상의 모든 수송 흐름을 집중 조직화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은 로스아톰사의 구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체쿰코프장관이 말함. 이미 오늘날 Rosatomflot사는 NSR 핵심 요소의 주요 참가자이자 운영기관이라고 장관이 "로시이 24" 인터뷰에서 언급.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NSR 상의 새로운 수송흐름 관리 조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함

출처: [www.rg.ru](http://www.rg.ru) 2022.4.13.

### ○ '세브모르푸티'호가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톡간의 정기 운송을 보장함

- 2022년 8월부터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톡간에 정기적인 카보타주 노선 운항이 시작될 것임. 이 프로젝트는 러 극동북극개발부가 로스아톰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임. 이에 관해 4월13일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북극개발회의 과정에서 밝힘.
- 원자력 쇄빙화물선인 "세브모르푸티"호가 운송을 담당하게 될 것임. 이는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화물 운임을 낮추게 될 것이고, 북극 운송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총리가 말함.

### ○ 러시아 북극 과학연구선 초저유황유 항해 출발

- 러시아 남북극연구소에 의하면 'Severny Polyus'호가 초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최초의 러시아 과학탐사선이 될 것이라고 밝힘. 내빙 자체추진 플랫폼은 5월 21일 첫 번째 테스트를 위한 발트해에서 출항할 계획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무르만스크를 향한 스칸디나비아 주변 항해는 9월에 시작될 것임.
- 4월에 개최된 북극관련 회의에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장관이 이 연구선이 첫 탐험을 통해 북극 해빙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 바 있음.
- 초저유황 연료유는 Omsk Oil Refinery에서 생산, Gazpromneft Marine Bunker가 공급할. 2023년 2년간의 탐험 항해가 시작될 예정. 2년동안 북극해류와 같이 중단없이 표류하도록 설계되었음. 34명의 과학자와 14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예정임

출처 : <https://thebarentsobserver.com>, 2022. 4. 19

## <조선>

### ○ 북극해항로 위한 선단 건조를 위해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

- NSR 상의 운송을 위한 화물선단 건조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조선소와의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 체쿰코프 장관 왈, " 현재 러시아에 2030년까지의 NSR 개발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음. 55척의 내빙 화물선 건조가 계획되어 있음. 그 가운데 10척은 정기적인 컨테이너 노선을 포함한 러시아 내부 운송용임. 화물 선단 건조 관련, 국제협력이 될 것임. 러시아조선소들의 힘만으로는 추가적으로 55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없음.
- "우리는 '조베즈다' 조선소에서 한국 조선소들과의 훌륭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가스운반선이 건조되고 있다". 중국 조선소들은 이 작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러 극동북극개발부 알렉세이 체쿰코프 장관이 '인터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 " 그 어떤 경우에도 먼저 러시아조선소들이 우선적으로, 최대한 선박 건조작업을 수행할 것임. 그러나 선박 주문은 매우 규모가 커서, 수년 내에 조선소들을 건설하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므로, 선단의 일부는 외국에서 건조될 것임. 그러나 오직 러시아조선소들이 건조 작업을 100% 채운 후에나, 우리는 선박 주문자들에게 외국 파트너들에게 가도록 추천할 것이라고 말함.

출처: [www.korabel.ru](http://www.korabel.ru), 2022.4.20.

## <북극항로 인프라>

### ○ 러시아 북극 개발 촉진 : 고위도철도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북극권 개발에 관한 화상회의에서 고위도철도 프로젝트 건설이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음. "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부, RZD, 가스프롬과 기티 회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우리는 오랫동안 북부 고위도철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수출품을 동쪽으로 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BAM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러시아 북극의 대형 프로젝트인 고위도철도는 화물흐름을 촉진하고 지역 인프라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산업정착지를 북극해와 연결시키면서 극북의 물류개발의 핵심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 철도를 이용하여 최소한 900만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철도는 야말반도로부터 북극해항로로 화물을 운송할 새로운 수출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임. 액체탄화수소 운송을 위한 최적의 개발을 포함하여 야말반도의 광물자원 개발, 물류지원 변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중임. 종합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러시아 교통부는 야말에서 추가 항만시설 개발 필요성 측면에서 Obskaya-Bovanenkovo-Sabetta철도 회랑의 인프라 구성을 명확히 하고 최종변수를 제시할 것임.

- 고위도철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됨. Ob까지 확장되는 동서연결은 Tyumen과 Nadym사이의 두 주요 북극 철도 라인과 아르한겔스크에서 북부라인을 연결함. 최종적으로 Obsakaya-Salekhard- Nadym-Pangody-Novy Urengoy-Korotchaev 노선을 따라 건설되며, Severnaya와 Sverdlovskaya를 직접 연결할 것임. Nadym은 페리노선으로만 본토와 연결되었으나 철교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 모두 707km이며 연간 2,400만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봄. 다른 부분은 고위도철도 2 프로젝트로 불리기도 하는, 현재 가스프롬이 운영중인 Bovanenkovo를 통해 Sabetta까지 170km 연장하는 구간임. 철도구간이 건설되면 사베타항은 러시아 정부와 노바텍사간의 합작 투자 항구로 야말 LNG 수출항구외에 모든 종류의 상품을 위한 일반화물항으로 탈바꿈할 것임.

출처 : <https://www.thearcticinstitute.org>, 2022. 4. 5. <https://en.portnews.ru>, 2022. 4. 13

## <북극 자원>

### ○ 천연가스 인텔리전스 : 3월 러시아 LNG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

- 선반중개인 Bancho Costa에 따르면, 러시아의 LNG수출은 3월 310만톤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음. 천연가스 인텔리전스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출하량은 2020년 3월보다 25%더 많았음. 유럽연합은 2030년 이전에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연말 이전에 러시아의 LNG수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U는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 Bancho Costa의 분석가 랄프 레슈친스키는 NGI와의 인터뷰에서 3월 러시아의 수출 증가는 현물시장에서의 구매가 아닌 장기계약과 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어들은 향후 제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날자를 앞당겨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Kpler의 분석가 Laura Page는 러시아 수출량이 작년 겨울에 Yamal LNG의 4번째 설비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Page씨는 “우리는 지금까지 러시아 3개 액화공장의 수출이 둔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Yamal과 사할린2의 대부분은 장기계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대만의 CPC Corp.이 지난 3월 만료된 사할린2와의 장기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물량은 확실히 유럽이나 일본 등 북아시아에서는 이런 화물을 기피하는 바이어들이 있지만 화물이 잘 팔리고 있다”고 했다.

-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 LNG의 주요 수입지임. 일본 바이어들은 사할린섬에 있는 가스프롬의 사할린 LNG의 계약물량을 계속 수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현물화물은 추가제재가 우려돼 거부되었다고 함.
- 2021년 사할린 LNG 수출량은 1,010만톤으로 러시아 전체의 33.3%에 달함. Banchero Coast에 따르면 시설의 모든 화물은 일본(600만톤)과 아시아로 운송되었음. 일본은 사할린1, 2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음.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이달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젝트는 높은 에너지가격 속에서 일본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에너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en.portnews.ru>, 2022. 4. 14

### ○ Total사의, Arctic LNG2 탈출 비용 40억 달러

- 프랑스의 Total사는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철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2년 1분기 계정에서 41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음. Total사는 3월말, 현재 건설 중인 Arctic LNG2 프로젝트를 수행능력에 대한 기술적 그리고 재무적 제재가 야기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대한 증명된 매장량을 예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함.
- Total사는 "4월 8일, 유럽 당국이 새로운 제재를 효과적으로 채택했으며, 특히 천연가스 액화에 사용하기 위해 유럽연합국가로부터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Arctic LNG2 프로젝트 실행에 추가적인 위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결과 Total사는 2022년 3월 31일 현재 특히 Arctic LNG2와 관련하여 41억 달러의 손상을 계정에 기록하기로 결정했음.

출처 : <https://www.upstreamonline.com/finance/arctic-lng-2-exit-costs-totalenergies-4-billion/2-1-1208378>, 2022. 4. 28

### ○ Nor Nickel과 Rosatom간의 협력 협정 체결

- 세계 최대의 팔라듐 및 고급 니켈 생산업체이나 백금과 구리의 주요생산업체인 Nor Nickel과 러시아 원자력회사 Rosatom이 협력 협정을 체결했음.
- 첫째, 쌍방은 조선 프로젝트의 이행과 원자력쇄빙선 함대 개발을 포함하여 북극해항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전략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임. Atofflot의 쇄빙선은 Nor Nickel이 운송통로를 타이미르반도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어 Norcinkel이 Norilsk에 대한 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2022년부터 Sibir 원자력쇄빙선은 무르만스크-두딘카 항로에서 연중항행을 제공하고 Yenisey만에서 상업적 운항속도를 보장할 것임.
- 공동 프로젝트에는 무르만스크 지역의 Kolmozerskoye리튬 매장지 개발과 리튬원료의 가공도 포함됨. Kolmozerskoye는 가장 크고 유망한 미개발 러시아 리튬 광상이며 현재 할당되지 않은 상태임. 양사는 동등한 지분구조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라이선스 경매에 참여할 것임. Kolmozerskoye리튬 광산 권리에 대한 경매는 2022년 3분기에 열릴 예정이며 시작가격은 미화 426만달러일 것임.

출처: <https://www.greencarcongress.com>, 2022. 5.1

○ 중국 Xinxing Far East Corporation, Primorye에 LNG플랜트 및 LNG LPG 터미널 건설

-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공사는 중국 Xinxing Far East Corporation LLC와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할 것이라고 했음. 극동북극개발공사는 Promorsky Territory Shkotovsky지역의 Pyati Okhotniokov Bay에서 연간 700만톤을 생산하고 항구(Valentina 가스터미널)에서 연간 700만톤의 LNG와 100만톤의 LPG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함. 2027년 가동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약 4,900억 루블일 것임. 지질, 측지, 고고학 조사가 수행 되었으며,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문서 개발이 진행 중임.

출처: <https://en.portnews.ru>, 2022. 4. 22

**본 뉴스레터는 해양수산부의 연구지원으로 발간되었음.**

480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E동 5103호)

TEL 051) 540-7350, e-mail : ial@ysu.ac.kr

Copyright Institute of Arctic Logistics, 2021, All Rights Reserved

끝.